

문학산책 · 2026년 8월 29일 · 6명

윗집 부부

이웃은 어디까지일까

황보름의 『윗집 부부』를 두고, 책 밖의 이웃과 결혼, 세대 이야기로 두 시간 넘게 이어진 밤. 가벼운 소설이라 생각했는데 저마다의 삶이 가장 많이 묻어난 모임이었습니다.

인사 한 번 없는 옆집	이웃은 담 하나 너머일까, 마음 가까이일까
결혼, 해야 할까	세대마다 다른 대답
우리에서 나로	코로나 뒤 달라진 관계
사람을 대하는 얼굴	고뇌가 쌓인 만큼 남의 삶이 읽힌다

황보름의 『윗집 부부』로 8월 29일 토요일 밤, 문학산책에서 모였습니다. "청강만 해도 괜찮은 소설"이라고 소개했던 가벼운 책인데, 이야기는 두 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.

인사 한 번 없는 옆집

책 제목처럼 첫 이야기는 우리 집 위아래, 옆집이었습니다.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는데 아직 인사 한 번 나눈 적이 없다는 이야기, 아랫집에 물이 새서 고쳐 주느라 오가다가 이번엔 우리 집에 물이 새더라는 이야기.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게 요즘의 이웃이지요.

그러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. "이웃은 물리적인 이웃이 아니라, 책미사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." 한 번 멀어졌던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, 나이가 들수록 굳이 서로 날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마음도 함께 나눴습니다.

결혼, 해야 할까

가장 길게 이어진 건 결혼과 아이 이야기였습니다. 비슷한 집끼리 만나야 맞추기 쉽다는 부모 세대의 생각, 결혼을 일찍 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젊은 시절의 기회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. 합계출산율 0.64라는 숫자를 놓고, 한 세대만 지나도 도시 인구가 반으로 준다는 계산에 다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.

반대쪽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누군가와 맞춰 사는 일이 지금의 익숙한 삶과 맞을지 모르겠다는 마음, "생존이 먼저"라는 말이 더 와닿는다는 고백. 아이가 낳지 않겠다고 하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과 그래도 낳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싶다는 말이 같은 자리에 나란히 놓였습니다.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"왜 결혼 안 하냐"라는 여론조사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어요.

우리에서 나로

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관계가 '우리'에서 '나'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남의 인생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오지랖이지만,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. "나는 이렇다" 하고 내 이야기를 꺼내는 데서 대화가 시작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.

노력하라고 말하는 기성세대와, 노력해도 벽이 있다고 느끼는 청년 세대.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,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지어진다는 말에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 본 것 같았습니다.

훈계를 듣는 법, 말하는 법

훈계하는 어른을 만났을 때 중요한 건 그 말보다 내 반응이라는 이야기. "올 게 왔구나" 하고 느긋하게 들으면 대부분 잘 넘어간다는 지혜도 나왔습니다. 반대로 책임자로서 아랫사람에게 말해야 할 때, 예전엔 상대 기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. 할 말은 하되, 어떻게 말하느냐가 남는다는 것.

사람을 대하는 얼굴

누군가를 오래 돌봐 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바꾼다는 이야기, 늦은 밤 안전하게 데려다준 대리운전 기사님께, 퇴근길 배달하시는 분들께 꼭 인사를 건넨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. 한 분이 좋아하는 글귀를 꺼냈습니다. "고뇌가 쌓이는 것만큼 타인의 삶을 읽어낼 수 있다." 나이가 들면 살아온 생각이 얼굴의 주름과 인상으로 남는다는 말도 오래 남았습니다.

마지막엔 사람과 똑같이 접시를 깨고, 졸리다며 잠들고, 배터리가 떨어지면 시장에 앉아 충전하는 로봇 이야기까지. AI가 감정을 담을 수 있다면 친구가 될 수 있을까, 하는 질문으로 밤을 마무리했습니다.

이날 진행 자료

방장이 준비한 슬라이드 7장입니다. 줄거리와 인물이 헷갈리면 여기서 먼저 보세요.



1 / 7



2 / 7

국가를 위한 결심인가, 나를 위한 증명인가?

30년 직장 생활 후 마주한 정년퇴직의 공허함.
'극초저출산'이라는 뉴스 속 거대 담론을 쥐고 "젊은 사람 딱 한 명을 설득하겠다"며 윗집의 문을 두드린 70대 오경직의 첫 발걸음



극초저출산과 한 사람의 결심

- 30년 직장 생활 끝, 세상의 변화에서 밀려난 소외감
- "딱 한 명만 설득해 보겠다" >> 나라를 걱정하는 노인의 대의명분
- 닫힌 일상의 무료함 >> 인구 소멸 뉴스 >> 윗집 신혼부부로 향하는 시선

오지랖과 다정한 연대의 경계

- 거대한 통계 속 숫자가 아닌 '진짜 한 사람'을 마주하는 일
- 결혼과 출산을 향한 어른들의 걱정은 왜 청년에게 오지랖이 될까?
- 설득의 욕망 내려놓기 >> 훈계가 아닌 경청 >> 다음 세대와 마주 앉는 태도

02 시작의 아이러니: 설득하러 간 어른의 문 두드림

우리는 타인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, 나를 확장하기 위해 문을 연다

생존과 이해 03

설득하러 간 사람, 삶을 이해하게 되다

생존
"동물은 생존이 위협받으면 번식하지 않아"

01 노력의 시대 vs 생존의 시대

통과의례라 믿었던 삶,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

- 기성세대의 '노력론'과 청년들의 '생존론' 사이의 간극은 어디에서 올까요?

02 가족의 침묵과 이웃의 발견

내 자식에겐 훈계가, 타인에겐 공감이 먼저 닿는 역설

-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보다 한 발 떨어진 이웃을 통해 그 세대를 이해하게 될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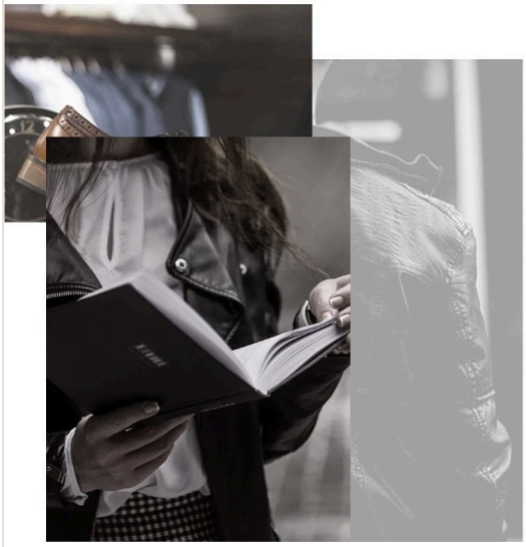
세대공존

다른 자리에 앉아 본다는 것.



04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탄생

- 늘 앉던 내 자리에서 내려와 타인의 자리에 앉아본 경험
- 항구의 놀이방 — 피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를 채워주는 연대
- "이 세상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"는 따뜻한 깨달음
- 훈계하는 어른에서 품어주는 어른으로 나아가는 품격



05 우리는 왜 타인의 삶을 읽는가? 다정함은 훈련될 수 있는가?

문학을 통한 감각의 확장

타인의 고통과 청년의 불안을 활자로 먼저 겪어보는 일.
소설은 굳어진 내 잣대를 부수고 시야의 경계를 넓히는 가장 안전한 실험실.
나와 다른 세대를 단죄하거나 계몽하지 않고, 가만히 응시하는 힘.
책을 덮은 뒤 우리가 일상에서 건넬 수 있는 다정한 시선의 무게.

[태도의 점검] 최근 내가 내린 섣부른 판단이나 편견은 무엇이었나?
[작은 환대] 일상에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'가장 작은 의자'는 어디인가?
[연대의 실천] 닫힌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먼저 건넬 수 있는 눈인사의 가치


생각해봅시다...
[생존 VS 출산]
청년 세대의 비혼·비출산 선택은 '위기 상황 속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본능'인가, '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삶의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린 비관적 체념'인가?
[오지랖 VS 관심]
저출산 : '사회적 어른의 용기 있는 관심'인가, '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례한 오지랖'인가?
[현실 VS 판타지]
식당 건물주가 공간을 내어 놀이방을 만들어주고 이웃들이 아이를 함께 돌보는 결말은 '우리가 지향해야 할 돌봄 공동체의 모델'인가, '제도적 한계를 개인의 선의로 덮은 비현실적 판타지'인가?
[관계의 거리]
아파트와 같은 현대 주거 환경에서 진정한 미덕은 '경직처럼 문을 열고 깊이 교류하는 관계'인가, '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무간섭'인가?
[화해 VS 회피]
경직이 자녀들(대호, 선지)과의 날카로운 갈등을 직접 풀기보다 윗집 부부와 이웃들에게서 '새로운 가족'의 온기를 찾는 과정은 '가족주의를 넘어선 성숙한 확장'인가, '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가족 갈등의 회피'인가?
[우울과 환대]
우울증으로 닫혀 있던 가을을 식당 일과 이웃들의 관계망 속으로 끌어낸 것은 '고립을 깨뜨린 구원의 손길'인가, '환자에게 또 다른 감정노동을 요구한 위험한 개입'인가?

책미사에 함께하고 싶다면

주로 토요일 밤 9시, 줌에서 만납니다. 완독 못 해도,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. 첫 참여는 무료, 그다음부터 모임당 5,000원입니다.

- 다음 모임과 신청: https://espada4897.github.io/espada/
- 이 책의 진행 자료: https://espada4897.github.io/espada/book-07c88c76.html